

“이제야 개막 실감”...야구장 문, 드디어 열렸다

26일 고척돔 입장 시작...경기장 수용 인원 10%만 관중 입장 허용

예매 시작 40분 만에 1674장 매진...‘낮선’ 응원에도 ‘불평’ 없어

“이제야 정말 개막이 실감 나네요.”

썰렁했던 고척스카이돔의 관중석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올해 처음으로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넘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팬들에게 닫혀있던 야구장의 문이 드디어 열렸다.

26일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열리는 고척돔에는 이번 시즌 첫 관중 입장이 시작됐다.

야구장 ‘직관(직접 관람)’에 목말랐던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만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가운데 고척돔 경기는 전날(25일)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40분 만에 1674장이 모두 팔렸다.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연 구장 내 구단 공식 용품점에도 긴 줄이 늘어섰다.

경기 시작 3시간여 전부터 고척돔 근처에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각 게이트에서 거리를 둔 채 입장 순서를 기다린 팬들은 발열 검사와 티켓 확인,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스캔 과정 등을 거친 후 마침내 고척돔에 들어설 수 있었다.

야구장에 입장해서도 팬들이 지켜야 할 룰이 있다. 장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좌석도 2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물과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관중석에 반입되지 않는다.

일행과 함께 야구장을 찾았다라도 떨어져 앉는 ‘낮선’ 응원이 시작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시대 이전에는 없던 규칙이지만, 불평하는 모습은 없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여상석(33) 씨는 “올해는 야구장을 못 오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게 돼 굉장히 좋다. 코로나19가 걱정은 되지만, 조심해서 관람해 다들 문제가

없었다면 한다”며 “야구장에 못 오다 보니 더 설렌다. 10% 관중에 들게 돼 기분 좋다. 이제야 정말 개막한 것 같다”며 웃었다.

우리가 알던 야구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팬들은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롯데팬 이상욱(50) 씨는 “오랜만에 야구장에 오니 벅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현장에서 선수들과 호흡하는 기분을 다시 느끼게 돼 느끼게 돼 정말 좋다”면서 “안전 수칙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 안전이 유지되고, 앞으로 관중 입장이 30~50%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여상석(33) 씨는 “올해는 야구장을 못 오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게 돼 굉장히 좋다. 코로나19가 걱정은 되지만, 조심해서 관람해 다들 문제가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관중 입장이 시작됐다.

없었다면 한다”며 “야구장에 못 오다 보니 더 설렌다. 10% 관중에 들게 돼 기분 좋다. 이제야 정말 개막한 것 같다”며 웃었다.

손혁 키움 감독은 “관중이 입장하고 나면 선수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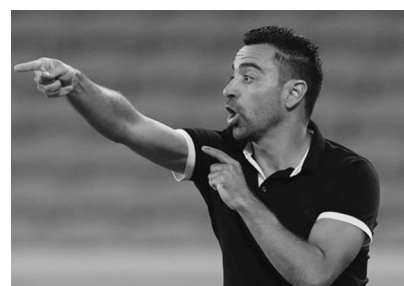
허문회 롯데 감독은 “프로는 관중이 있어야 흥이 난다. 더 많은 관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2020 13라운드 광주FC 대 수원삼성의 경기 장면이다. 광주축구전용구장은 광주월드컵 경기장 부지 내 보조구장에 가변석을 설치하는 형태로 신축된 경기장으로 이날 첫 경기가 열렸다.

스페인 레전드 사비, ‘카타르’서 코로나19 확진

무증상...자가격리 중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과 명문 클럽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레전드로 불리는 사비 에르난데스(40) 알 사드(카타르) 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비 감독은 26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팀의 공식 일정에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이다.

사비 감독은 현역 시절 스페인 국가대표로 A매치 133경기(13골)를 뛰었다. 2010 국제축구연맹(FIFA) 남아공월드컵, 유로 2008, 유로 2012 등에서 허리를 책임지며 우승을 진두지휘했다.

또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767경기에서 출전해 85골을 기록했다. 유스 출신으로 알 사드로 이적하기 전까

지 줄곧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다. 바르셀로나에 리그 8회, 스페인 국왕컵 3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회, FIFA 클럽월드컵 2회 등 총 25개의 우승트로피를 안겼다.

2015년 카타르에 진출해 지난해 5월 현역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알 사드 지휘봉을 잡았다.

카타르 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에 중단됐다가 24일 재개됐다. 알 사드는 재개 후, 첫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사비 감독이 자리를 비웠지만 알 사드는 알 코르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ML 데뷔전서 세이브’ 김광현 “훨씬 좋아져야 한다”

25일 빅리그 첫 경기서 1이닝 2실점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이 25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2020시즌 MLB 개막전에서 팀이 5-2로 앞선 9회초 등판, 1이닝 2피안타 2실점(1자책)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지켜낸 뒤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와 자축하고 있다.

“훨씬 더 좋아져야 한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데뷔전에서 세이브를 수확한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약속했다.

26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에 따르면 김광현은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가졌다.

그의 빅리그 데뷔전이 주요 관

심사였다. 김광현은 전날(25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2020시즌 MLB 개막전에서 팀이 5-2로 앞선 9회초 등판, 1이닝 2피안타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팀이 5-4로 이기며 김광현은 세이브를 올렸다.

빅리그 첫 경기를 돌아본 그는 “마무리로 나섰던 경험이 많지 않아 긴장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까지 SK 와이번스에서 에이스로 뛰었던 김광현은 2019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시스템을 거쳐 세인트루이스와 계약, 미국 진출의 꿈을 이뤘다.

그가 KBO리그 무대에서 세이브를 기록한 건 포스트시즌 중 두 차례뿐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보직으

로 출발하게 됐지만 팀의 승리를 지켜내며 ‘마무리 투수 김광현’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를 끝낸 뒤에 동료들의 축하도 받았다. 김광현은 “사위실에서 선수들이 생수와 각종 종류의 음료를 내게 부었다. 귀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웃으며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김광현에게는 긴 시즌이 남았다.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첫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광현은 “매 경기 더 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훨씬 더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BO리그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실밭이 두꺼운 공인구에도 적응 중이다.

“모든 선수들이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 익숙해져야 한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전남체고 조민재, 춘계역도대회 금빛 바벨 “번쩍”

남고부 61KG급 3관왕 달성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역도 3관왕과 MVP를 거머쥔 전남체고 조민재가 올 시즌 첫 대회에서도 3관왕과 MVP를 번쩍 들어올렸다.

조민재는 23일,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끝난 제68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남고부 61kg급에서 인상 111kg, 용상 143kg, 합계 254kg을 들어올려 3관왕에 올랐다.

조민재와 함께 61kg급에 출전한 정현목(전남체고 3년)은 인상 103kg, 용상 133kg, 합계 236kg으로 조민재에 이어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지난해 전남체중을 졸업하고 전남체고 1학년이 재학 중인 조민재는 두 살 많은 형들과 겨뤄도 압도할만한 무게를 들어 올리며 ‘헤라클라스’라는 별명에 걸맞는 기록 행진을 보여주며 대회 남고부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했다.

조민재를 비롯해 남중부와 남고부 타체급에서도 금빛 행진이 이어지며 전남역도는 연일 승전보를 울렸다.



가운데 조민재

남중부 81kg급에 출전한 김현호(완도중 3년)는 인상 108kg, 용상 117kg, 합계 225kg으로 3관왕, 남고부 109kg 이승현(전남체고 3년)은 인상 155kg, 용상 195kg, 합계 350kg으로 두 선수 모두 3관왕 금자탑을 쌓았다.

이어 남중부 89kg 문찬우(완도중 3년)도 인상 95kg, 용상 126kg, 합계 221kg으로 인상에서 1kg 부족한 아쉬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 남고부 109kg급 정대관(전남체고 3년)도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전남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의 어려움과, 늦어진 시즌개막으로 인해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전남 역도의 자긍심을 드높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훈련에 임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손흥민 70m 원더골, BBC 선정 ‘시즌 최고의 순간’ 8위

손흥민(토트넘)의 70m 원더골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019~2020시즌 최고의 순간 투표에서 8위에 올랐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26일(한국시간) 이번 시즌 가장 인상적인 순간 후보 12개를 선정해 팬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돌파가 돋보였던 번리전 골이 8위에 올랐

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8일 번리와 EPL 16라운드에서 토트넘 진영에서 골을 잡고 71.4m를 돌파하며 골을 넣었다.

수비수 6명을 따돌리며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 폭발적인 돌파와 체력, 안정적인 드리블이 인상적이었다.

BB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단 때문에 몇몇 골을 기억하기 어렵지만 손흥민의 골은 특별했다”며 “12초 동안 12번의 터치로 수비진을 뚫고 골을 넣었다”고 소개했다.

리버풀이 30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오른 게 최고 장면으로 뽑혔고, 코로나19로 인한 중단이 2위에 올랐다.